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Korean Soldiers

Byung Kyu Jin^{1#}, Hyo Sun Park²⁺

¹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62 Daehak-ro Dong-gu Daejeon, Korea

²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586 Daesung-ro, Sangdang-gu, Cheo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gre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Korean soldiers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design a policy for multicultural barracks. This study analyzes the variables potentially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using the Korean version of MCI (KMCI).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multicultural acceptance index among Korean soldiers is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citizens in Korea. Second,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dex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Korean soldiers in class and education. Third, the difference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the variabl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sub-domains.

Key words: multicultural militar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ducation,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for adults (KMCI).

1.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다원화의 흐름 속에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언어, 인종, 종교 및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가시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이주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외래문화가 유입되면서 기존 문화의 고유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군(軍) 역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장병이 군에 입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도 전·후를 기점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결혼 연령의 상승 등 출산율 저하로 인구와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세를 기준으로 병역자원은 1990년에 47만여 명, 2012년에 38만 2천여 명, 2015년에 37만 3천여 명으로 줄었으며, 향후 2020년에는 33만 1천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교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계 주민(국제결혼 이주 여성 포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은 일반 가정의 2배(2.3명)에 이르고 있다(NSO, 2017).

[#] The 1st author: Byung Kyu Jin, Tel. +82-63-840-1405, e-mail, jbk0622@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Hyo Sun Park, Tel. +82-43-229-7952, Fax. +82-43-229-7950, e-mail, phs6166@cju.ac.kr

아울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입대도 갈수록 증가하여 2030년에는 군 전체 병력의 5%가 다문화 장병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병역법 제65조 제3항에 규정된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2010년 1월 25일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인종과 피부색, 외관상의 식별과 관계없이 본인의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공개한 다문화 가정(가족) 출신 병사 입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52명, 2011년에 228명, 2013년에 306명, 2016년 6월 185명까지 포함하여 현재 557명이 군 복무 중(Yonhap News, 2014)에 있다. 국방부(2016)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다문화 가정 자녀는 2006년 2만 5천명에서 2015년 20만 8천여 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 또한 최근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의 군 입대 추세를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 평균 8천 518명의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가 입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Yonhap News, 2016. 6. 20). 이렇듯 다문화 가정 자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군이 다문화 군대로 변모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다문화 장병의 원활한 복무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다문화 장병 차별 금지 및 고충 우선 처리 규정을 정비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부대관리훈령」에 다문화 존중 및 교육 시행 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군 장병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장차 입영할 다문화 장병에 대한 체계적인 수용기반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복무 중인 다문화 장병에 대한 별도의 현황조사나 식별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다문화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심층적인 연구나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다문화 군대에 대비한 수용기반구축과 병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의 개념과 한국사회 변화 추이

1) 다문화의 개념

다문화란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의 사회적 현상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기반을 둔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권이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 국익을 초월한 이익 실현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을 포함한 소수인종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다문화의 의미를 다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한국적 맥락에서는 주로 다인종화, 다민족화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의 다양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Koo, *et al.*, 2010: 16-17). 특히 문화의 다양성은 ‘각 민족의 풍습, 습관, 역사, 문화 등이 다양하다.’는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Korean Social Studies Association, 2011: 14).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특수성을 살펴보면, 자연 발생적이거나 오랜 이민의 역사와 경험 등의 축적과정이 없이 비교적 급작스러우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양상을 띠고 있다(Ahn, *et al.*, 2015: 13). 이처럼

다문화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다양한 문화’로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 다문화 환경, 다문화 가정, 다문화 정책,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군대 등 우리 주위를 구성하는 각 분야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즉, 다문화는 구체적인 분야나 내용과 결합하여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Kim, 2008: 53-74).

따라서 국가방위 임무를 위하여 조직된 특수한 집단으로서 공동체 조직 내에서 다른 인종, 언어, 종교, 계급 등에 따른 다양성을 지닌 구성원간의 다양한 문화적 공존관계가 형성된 군대조직을 다문화 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원리가 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1971년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동화정책을 대신해서 소수집단과 이민자 집단의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와 보존을 인정하고 수용한 정책에서 사용되었으며, 이후에 미국과 호주 그리고 일부 유럽국들로 퍼졌다(Moon, 2008: 36-71).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모습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서 사회적 규약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이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이론으로 샐러드 볼 이론(Theory of Salad Bowl)¹⁾, 혹은 모자이크 이론(Theory of Mosaic)²⁾으로도 불린다. 다문화주의 이론을 사회적, 철학적, 정치적 측면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문화, 인종, 민족, 성, 신체 등을 매개로 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현상적으로 등장하고 또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석과 의미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Kim, 1996: 210-212). 둘째, 철학적 측면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으로 다문화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Jeong, 1997:

334).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집단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그들에게 억압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그들 고유문화와 차이에 대한 존중을 실현하는 사회정책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다문화주의의 등장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관련이 깊다(Lee, 2004: 182-183). 1960년대의 인권운동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의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내국인과 소수 인종집단의 권리의식이 고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 한국사회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자유화 및 개방화 정책에 따라 산업연수생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더불어 한국사회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과 결혼 상대자 수급 불균형에 의한 동남아시아 권역의 국제결혼 추진 등도 다문화가정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법률상에서 다문화 가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이란 다문화 가족지원법(법률 제9932호) 제2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가족)은 넓은 의미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외국 국적 동포, 북한 이탈주민(새터민)³⁾ 등 서로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가정을 의미하며, 외국인 이주

1) 미국에서 만들어져 지지를 받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20세기 후반 세계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제기된 다문화 교육 이론으로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려는 것이다. 즉 샐러드 볼 안에 담긴 각 재료들의 개성을 존중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2) 캐나다의 John Murray Gibbon이 1938년에 처음으로 제기한 이론이다. 미국 이민자들의 뿌리를 없애려고 시행한 정책인 용광로 이론에 반대하여 이민자들의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상적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모자이크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3)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이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은 현재 한국에서 사는 북한 이탈자는 물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자를 모두 포함한다.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문화 가정은 이주민이 형성한 가족공동체를 가리키며, 가족 전체가 한국 국적이 아닌 다른 국적 또는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언어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 주된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형성 원인에 따라 크게 국제 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북한 이탈주민(새터민)가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hoi, 2010: 95).

2017년 6월 법무부에서 공식 발표한 한국사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2006년 91만여 명(1.9%)에서 2016년 205만여 명(4.0%)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류 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2021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3백만 명을 넘어서고 우리나라 총 인구(51,566,398명)대비 외국인 비중이 5.82%로 OECD 평균(5.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Department of Justice, 2017a: 1-6).

또한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49.6%), 베트남(7.3%), 미국(6.8%), 타이(4.9%), 필리핀(2.8%), 우즈베키스탄(2.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일본, 몽골, 타이완, 인도네시아, 캐나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러시아, 인도, 홍콩, 호주, 영국, 미얀마 등 ‘기타’라고 표기한 국가를 제외하고도 22개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의 국적 자체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Department of Justice, 2017b: 16).

2. 한국군 다문화 병영 환경 및 정책

1) 다문화 관련 병역법 및 변화 추이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이러한 최초의 병역법은 1949년 8월 6일 제정 공포된 이후 50여 차례 개정되어 유지되고 있다. 창군 이후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 제3조 병

역의무 조항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도 병역의무를 수행해 왔다. 1970년대에 들어 혼혈인 등 피부색이 다른 병사들이 군에 입대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72년 6월 국방부에서는 혼혈인 병사를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조치했다.

그 후 2007년 12월 31일 개정된 병역법(법률 제8834호 일부 개정) 제3조 1항에 명문화되어 있던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개정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혼혈인은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2009년 12월 29일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병역법 제65조 제3항에 규정된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다문화 가정 남자 자녀들은 2012년 1월 1일부터⁴⁾ 인종과 피부색, 외관상의 식별과는 관계없이 본인의 징병검사 결과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노양규 외, 2014: 60-68). 국방부(2016b)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군 입영 대상자의 수는 3,549명으로, 향후 한국군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비교적 동질적인 민족 공동체 의식의 군대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공동체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병무청에서 시행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역 의무 부과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은 84%가 찬성하였으나,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모 57%는 부적응과 따돌림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역 의무 부과를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경험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학교와 사회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장병⁵⁾의 입대는

4) 이는 19세에 신체검사를 받고 20세 이후에 입대를 희망하는 입영 적령자를 기준으로 19세에 신체검사를 받고 곧바로 입영을 희망하는 육군 기술지원병 또는 해·공군 일반 모집병의 경우는 2011년도에도 입영할 수 있다.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부족현상 해결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문화·종교·인종적 배경을 가진 장병들의 입대로 우리 군이 글로벌 군대로 거듭나 보다 선진화·정예화 될 수 있는 기회이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병역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무청 「병무통계연보」(2017)에 따르면 전국 징병검사대상자 대비, 다문화 가정 남자 자녀는 2011년 기준 0.33%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0.51%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군 입대도 2010년에 52명에 불과했으나, 2014부터 2016년에는 3,549명으로 급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2019년에 4,393명, 2020년~2025년에 15,451명, 2026년~2031년에는 38,34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방부, 2016: 150). 전국 징병검사 대상자 대비 다문화 가정 남자 자녀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위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한국 군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국군의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는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입대와 해외 유학 등 장기간 해외 체류 경험에 있는 장병의 유입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세계평화유지활동의 증가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김영준, 2016: 49).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2006년 이후이며, 논의의 계기는 병역 충원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 공식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이후 급감하여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국방부, 2005). 이는 병역자원 충원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2) 한국군의 다문화 관련 정책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29일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65조 제3항 개정이후,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에는 ‘군인복무규율(개정2012. 2. 22.) 제5조(입영 및 임관 선서)’의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라는 ‘민족’의 표현을 ‘국민’으로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족을 배제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아울러 다문화 장병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 군대에 대비한 추진시책을 하달하여 일반 장병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장병교육과 병영생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검토하여 인종차별적 요소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Table 2>와 같이 정비 및 보완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방부(2016)의 다문화 관련 정책추진 방향은 다문화 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관리하며, 다문화 장병이란 이유로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를 위해 전 장병이 다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우애를 나누는 동료로 인

Table 1. In contrast to draft checks across the country for the 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child status

For award year	Draft subject to inspection (19-year-old, 12.31. Standard)	Multicultural family man child (17-year-old, 1.1. Standard)	Rain rate
2011	382,830 People	1,258 People	0.33%
2012	377,531 People	1,461 People	0.39%
2013	380,828 People	1,735 People	0.46%
2014	366,289 People	2,199 People	0.60%
2015	352,648 People	2,790 People	0.79%
Total	1,860,126 People	9,443 People	0.51%

※ Sour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2016: 34), G. Morgan(2006)

- 5) 다문화 장병이란 다문화 가정(가족) 출신 자녀인 장교, 부사관, 병사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현재 다문화 가정 출신 장교 임관자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장교가 배출된다는 전제하에 다문화 장병으로 적용하였다.

Table 2. In contrast to the related laws and system maintenance of a multicultural army

Separator		Contents
The Statute	Military justice	• Racial discrimination due to the color of their skin, etc. • Add
	The military service act enforcement decree	• Apparently the obvious mixed-race people, transfer provisions deleted article
The Directiv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The Ombudsman handles complaint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at first stipulate • Barracks life adds a professional Counsellor mission of multicultural kidney disease management
	MMA	• Multicultural service members caring for premature enlistment: adapta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additional
Regulations		•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Ombudsman notes reflect, etc. • Military specialty and classified regulations supplement the troops (personnel management regulations) • Service members reflects the M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 Accompanied by enlisted (including kidney, personnel/allow local multiculturalism to enlarge) • A permanent resident outside complement to enlistment incentives (including identifying obvious mixed-race persons)

※ Sour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2016)

식할 수 있도록 병영 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위한 장병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구축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부대관리훈령」에 다문화 존중 및 교육 시행 근거와 다문화 장병 차별 금지 및 고충 우선 처리 규정 등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은 주로 병력 관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반 장병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3. 다문화 수용성 개념과 구성요소

1)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에 관해 학자들 간에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은 다문화 수용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Hwang, *et. al.*(2007)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 또는 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한다. Kim(2010)은 다문화 수용성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나타내는 인지적 요인으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

를 유지하며 문화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정서적 요인과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행동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Yoon(2010)은 다문화 수용성을 넓은 의미로 보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Min, *et. al.*(2010)의 연구자들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Ahn, *et. al.*(2012)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문화의 사회구성원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공존”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화주의’와 대비되는 다문화주의를 수용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Berry & Kalin(1995)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부재는 다른 문화나 종족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만들고, 그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편견과 차별을 낳는다”고 하였다. Hoopes(1979)의 문화 유능성 모델에 의한 문화 간 학습 과정과 Bennett(1993)가 제안한 문화 간 감수성 발달모델(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의 발달단계 모형

에서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의 ‘수용성’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Hoopes의 모형에서 ‘수용·존중(acceptance·respect)’단계에서는 “다른 문화가 가진 삶의 방식이 자신의 문화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화가 가진 나름의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했다.

또한 Bennett(1993)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과정을 거쳐 자신의 일부까지 통합되어 가는 연속적인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 감수성은 “둘 이상의 문화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 경향성”으로 정의되며(Bennett, 1993: 21-71), “특정한 고정관념에 고착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말한다(Yang, 2009).

또한 비교문화 유능성(Lynch, 1992), 비교문화 적응성(Kelly & Meyers, 1995), 문화 유능성(Byram & Doye, 1999), 다문화 효능성(Van der Zee & Oudenhoven 2000; Kaya & Ayhan, 2009), 문화 간 감수성(Chen & Starosta, 2000; Hammer, Bennett & Wiseman, 2003)등 학자마다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용어로 칭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용어와 표현, 접근방식에서 차이는 있지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문화 간 차이를 인지하고 특정 국가와 문화,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Lee, 2015: 26).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은 군대 공동체 조직 내에서 다른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2)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요소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성요소

를 논의하는지에 따라 연구자의 예측에 따른 연구결과 및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를 기초로 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측정도구는 이주민이 아닌 선주민의 입장, 즉 ‘한국군 일반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규정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KMCI는 Berry(2002)의 문화적응모형 등을 참고하는 동시에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수준을 반영하여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축을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구성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즉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현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넘어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 자체를 논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개인은 다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크기에 따라 피동적 수용, 일반적 수용, 적극적 수용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가정하고 각 차원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를 반영하는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측정한다(〈Table 3〉).

III. 연구의 설계

1.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장병에 대한 대표적 표본추출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하였다. 이는 국방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한국군 장병들이 군내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변인에 초점을 두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계급, 학력, 종교, 입대 전

Table 3. The concept of area-specific subdirectory of the Castle measur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Subarea		Measurement concepts
Diversity	Cultural openness	• Diverse cultural background and degree of inflow of emigrants
	National identity	• Acknowledging the diversity of national eligibility criteria for degree
	Stereotypes, discrimination	• Foreign and emigrant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the extent to
Relationships	Expect either a fairy tale	• The degree of assimilation and compliance expectations our culture of emigrants
	Reject • avoidance emotion	• The degree of negative sentiment from the unreasonable situation contact the emigrants
	Interactive action will	• Friendship relationships with party of emigrants to the extent
Universal	Dual assessment	• Economic development level, cultural background rating
	World citizen action will	• The pursuit of universal values such as humanity, and not enough of the practice

※ Source: Ahn Sang-soo, *et. al.*(2012: 53-59)

출신 지역, 경제적 수준 등이 있다. 다문화 관련 변인으로 다문화 단순목적 빈도, 해외여행 및 해외거주 경험, 외국인/이주민 관계 유형, 다문화 교육경험, 다문화 관련 활동 참여 요인이 있다. 따라서 이 각각의 변인이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요소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경험요인은 다문화 군대 수용성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에서 제시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3개 차

원에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는 일반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위계질서와 제한된 병영생활을 하는 군대조직 내에서의 변인들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Cronbach 계수(α)가 .929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를 통해 개발된 KMCI 진단도구를 활용하였다.

KMCI에서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라는 3개 차원으로 가정하고 총 8개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진단도구는 5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6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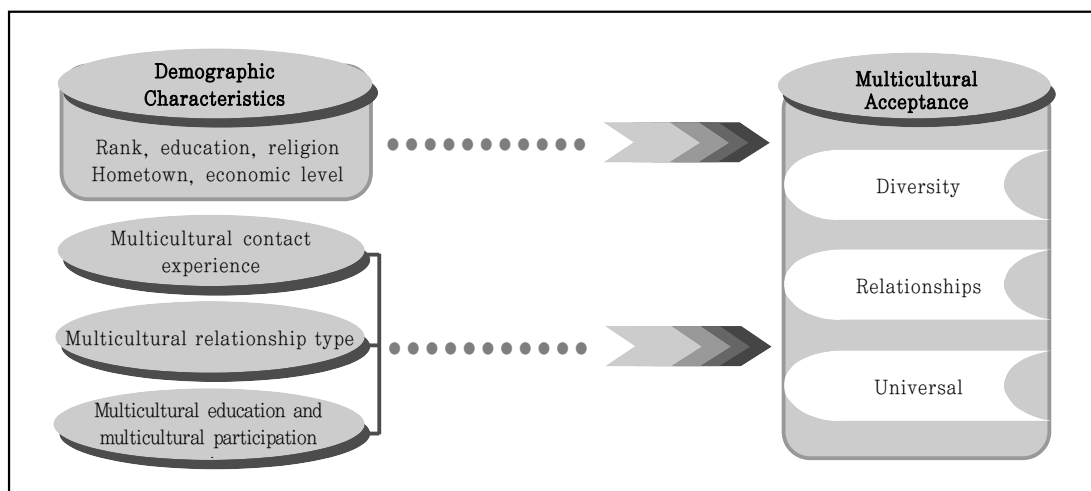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Table 4. Questionnaire item configuration

Separator				Question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
Independent variables	Multiculturalism-related variables	Simple sighting frequency		1
		Foreign experience		3
		Foreign/settlers relationship type		3
		Multicultural education and related activities		5
Dependent variable	Multicultural Acceptance	Diversity	Cultural openness	4
			National identity	4
			Stereotypes/discrimination	7
		Relationships	Expect either a fairy tale	4
			Donate • avoidance emotion	3
			Interactive action will	4
		Universal	Dual assessment	4
			World citizen action will	5
Total				52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KMCI의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Cronbach 계수(α)가 .929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지는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문화 관련 변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계급, 학력, 종교, 입대 전 출신 지역, 월평균 소득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 관련 변인으로는 단순목적 빈도, 해외 경험, 외국인/이주민 관계 유형, 다문화 교육 및 관련 활동을 질문하는 항목으로 <Table 4>와 같이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부호화 작업과 가중치 적용을 위한 점수 변환 후에, 부호화 작업은 문항에 대한 역 부호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문항에 대한 역 부호화 작업은 수용성 방향으로 점수를 변환하며, 총점 및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amily, 2015).

본 연구는 선행 조사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도구를 토대로 역부호화 작업을 시행한 후, 하위 차원의 가중치가 부여된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KMCI 결과 분석을 위해 원점수 총점이 아닌 0~100점 사이의 환산점수를 갖는 다문화 수용성지수(KMAI)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지수 산출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간명성을 높이고 의미의 전달력을 높일 목적으로 검사를 활용할 때 채택할 수 있는 점수 계산법으로, 여러 집단 간의 상대적 비교가 용이하며 구성 개념 간 상대적 가중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구성 개념의 중요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2015년에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에서 활용된 KMCI 진단도구는 2011년도에 이루어진 2,500명의 대표성을 갖춘 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중치 도출방법의 한 가지 방식인 구조방정식 측정모형을 적용하여 KMCI의 하위 구성요소들의 산출된 가중치를 활용하였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Family, 2015).⁶⁾ 또한 위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인

6) <Figure 2>에서 $\bar{X}_j$ 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측정변수 j 의 평균값이고, r 은 측정변수의 Likert 척도의 범위로서,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에서는 6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므로 $r=6$ 이 된다. w_j 는 측정변수 j 의 비율로 환산된 가중치이다. 따라서 8개 하위 구성요소의 가중치 합($\sum_{j=1}^8 w_j$)은 100이다.

$$\text{다문화수용성지수 (KMAI)} = \frac{\sum_{j=1}^8 w_j \bar{X}_j - \sum_{j=1}^8 w_j}{(r-1) \times \sum_{j=1}^8 w_j} \times 100$$

Figure 2. Multicultural Acceptance Formula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의 가중치 적용방법을 적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지수 산출 공식은 <Figure 2>와 같다.

분석을 위해서는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KMCI 측정도구의 하위 척도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도출하였으며, 둘째,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및 영역과 하위 구성요소별 기초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다문화 경험요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과 그 하위요인들의 차이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 및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시행하였다. 넷째, 2015년 한국인의 KMCI 측정결과를 토대로 일반 국민과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지수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KMCI의 하위 척도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뢰도 분석방법은 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연구 개념의 일관성 검증방법인 내적 일관성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측정변인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내적 일관성의 경우 Cronbach's α 계수가 .6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가 .8 이상에 해당하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측정하는데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다양성 .908, 관계성 .845,

Table 5. Reliability analysis

Separator	Questions	Cronbach's α
Multicultural Acceptance	35	.929
1) Diversity	15	.908
Cultural openness	4	.832
National identity	4	.820
Stereotypes/discrimination	7	.891
2) Relationships	11	.845
Expect either a fairy tale	4	.782
Donate • avoidance emotion	3	.938
Interactive action will	4	.836
3) Universal	9	.708
Dual assessment	4	.828
World citizen action will	5	.737

보편성 .708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929로 신뢰도를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집단 간 차이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변인들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계급과 학력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는 다양성 영역에서 학력과 계급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는 단순목격 빈도, 해외 체류기간, 외국인/이주민의 관계 유형, 외국인/이주민 친구 및 친척 수, 외국인/이주민 친구 및 친척의 접촉 빈도,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다문화 교육 횟수, 다문화 관련 행사 참여,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 참여, 다문화 관련 동호회활동 참여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지수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하위 영역에서도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영역의 경우 해외여행 및 거주경험 여부가 추가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편성 영역의 경우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추가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검증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은 전체 변인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문화 수용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계급, 학력 변인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관련 변인에서는 단순목적 빈도, 해외 체류기간, 외국인/이주민의 관계 유형, 외국인/이주민 친구 및 친척 수, 외국인/이주민 친구 및 친척의 접촉 빈도, 다문화 관련 교육 여부 및 교육 횟수, 다문화 관련 행사 참여,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 참여, 다문화 관련 동호회 활동 참여 변인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 영역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계급, 학력 변인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변인에서는 단순목적 빈도, 외국인 및 이주민의 관계 유형, 외국인/이주민

친구 및 친척 수, 외국인 및 이주민 친구/친척의 접촉 빈도, 다문화 관련 교육 여부/교육 횟수, 다문화 관련 행사 참여,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 참여, 다문화 관련 동호회활동 참여 변인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영역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영역이 없었으며, 다문화 관련 변인에서는 단순목적 빈도, 외국인/이주민의 관계 유형, 외국인/이주민 친구/친척 수, 외국인/이주민 친구 및 친척의 접촉 빈도, 다문화 관련 교육 여부/교육 횟수, 다문화 관련 행사 참여,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 참여, 다문화 관련 동호회활동 참여 변인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성 영역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영역이 없었다. 다문화 관련 변인에서는 단순목적 빈도, 해외여행 및 거주경험 여부, 외국인/이주민의 관계 유형, 외국인 및 이주민 친구/친척 수, 외국인/이주민 친구/친척의 접촉 빈도, 다문화 관련 교육

Table 6. Group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parator		Multicultural Acceptance	Diversity	Relationships	Univers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	○*	○***		
	Education	○**	○***		
	Religion				
	Hometown				
	Income				
Multiculturalism-related variables	Simple sighting frequency		○*	○*	○***
	Foreign travel and residency experience	Experience		○*	
		Travel frequency			
		Period of stay			○*
	Foreign/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emigrants	Relationship type	○**	○**	○*
		Number of friend/relative	○**	○*	○*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friends/relatives	○***	○***	○**
	Multicultural education and related activities	Education	○***	○**	○*
		Education counts	○**	○**	○*
		Event participation	○***	○***	○***
		Service activities	○***	○***	○***
		Club activities	○***	○***	○***

*Notes: ***: $p < 0.001$, **: $p < 0.005$, *: $p < 0.05$

여부/교육 횟수, 다문화 관련 행사 참여,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 참여, 다문화 관련 동호회활동 참여 변인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Table 7>과 같다.

3. 한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비교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일반 국민 대비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도출된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하위 영역별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의 일반인 다문

화 수용성지수 결과와 영역 및 하위 차원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1)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70.06점으로 나타났다으며, 편차는 13.65점으로 6.86점에서 10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 지수는 74.73점으로 구성요소별로는 문화 개방성 66.32점, 국민 정체성 71.71점, 고정관념 및 차별 80.50점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지수는 68.54점으로 구성요소별로는 일방적 동화기대 64.91점, 거부·회피 정서 83.41점, 상호교류 의지 61.03점으로 나타났으며 보편성지수는 64.11로 구성요소별로는 이중적 평가 56.19점, 세계시민 행동 의지 70.4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7. Cross-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Separat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	Education	Religion	Hometown	Income
Multicultural Acceptance	r	.119	-.098	.022	-.053	-.034
	p	.008*	.028*	.617	.235	.452
Diversity	r	.185	-.170	.054	-.058	-.063
	p	.000***	.000***	.231	.193	.160
Relationships	r	.084	-.057	-.011	-.037	-.040
	p	.059	.202	.803	.416	.376
Universal	r	-.023	.036	-.003	-.037	.048
	p	.608	.417	.943	.407	.287

Multiculturalism-related variables											
Simple sighting frequency	Foreign travel and residency experience			Foreign/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emigrants			Multicultural education and related activities				
	Experience	Travel frequency	Period of stay	Relationship type	Number of friend/relative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friends/relatives	Education	Education counts	Event participation	Service activities	Club activities
.188	.014	.054	.088	.157	.170	.196	.157	.172	.190	.181	.217
.000***	.755	.225	.04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86	-.045	.045	.069	.135	.151	.162	.157	.158	.162	.147	.194
.000***	.312	.315	.124	.002*	.001*	.000***	.000***	.000***	.000***	.001**	.000***
.139	.029	.025	.067	.148	.160	.193	.139	.158	.179	.168	.181
.002**	.521	.576	.133	.001**	.000***	.000***	.002**	.000***	.000***	.000***	.000***
.154	.097	.081	.104	.124	.127	.156	.097	.123	.155	.163	.189
.001**	.029*	.068	.020*	.005*	.004**	.000***	.029*	.006**	.000***	.000***	.000***

*Notes: ***: $p < 0.001$, **: $p < 0.005$, *: $p < 0.05$

Table 8. Korean military service member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Separator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Multicultural Acceptance		70.06	13.65	6.86	100
Diversity	Average	74.73	16.27	2.67	100
	Cultural openness	66.32	20.97	0	100
	National identity	71.71	22.86	0	100
	Stereotypes/discrimination	80.50	17.45	0	100
Relationships	Average	68.54	15.83	9.09	100
	Expect either a fairy tale	64.91	21.35	0	100
	Donate · avoidance emotion	83.41	18.96	0	100
	Interactive action will	61.03	21.62	0	100
Universal	Average	64.11	14.49	11.11	100
	Dual assessment	56.19	22.29	0	100
	World citizen action will	70.45	17.90	0	100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하위 영역과 영역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2) 한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비교분석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70.06점으로 2015년 일반 국민의 조사결과에 따른 평균 53.9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군 장병이 일반 국민 보다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조사결과 편차는 13.62점이었으며, 최하 지수 값은 6.9점, 최대 지수 값은 100점으로 지수 폭은 일반 국민의 최소 지수 값 0점, 최대 지수 값 100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지수 모두 한국군 장병이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수용성지수 비교결과 한국군 장병의 다양성 영역 지수는 74.73점으로 0점에서 10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일반 국민의 다양성 지수인 55.1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군 장병의 관계성 영역 지수는 68.54점으로 9.1점에서 10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일반 국민의 관계성 지수인 53.4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군 장병의 보편성 영역 지수는 64.11점으로 11.1점에서 10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

며, 일반 국민의 보편성 지수인 52.76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영역은 각 하위 구성요소의 수용성 점수가 각각의 가중치만큼 곱해져 합산된 결과로 이들 차원을 8개 하위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구성요소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Family, 2015).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성 영역은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등 3개 요소로 구성되고 관계성 영역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교류 행동 의지 등 3개 요소로 구성되며, 보편성 영역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의식 행동 의지 등 2개 요소로 구성된다. 이에 하위 구성요소별 수용성 결과 및 일반 국민과의 비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Figure 3>과 같다.

한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의 하위 구성요소별 수용성 지수를 살펴보면 전 영역에서 한국군 장병의 수용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문화 개방성은 한국군 장병이 66.32점, 일반 국민이 49.36점으로 나타났다으며, 국민 정체성은 한국군 장병이 71.71점, 일반 국민이 50.32점, 고정관념 및 차별은 한국군 장병이 80.50점, 일반 국민이 64.60점, 일방적 동화기대는 한국군 장병이 64.91점, 일반 국민이 46.44점, 거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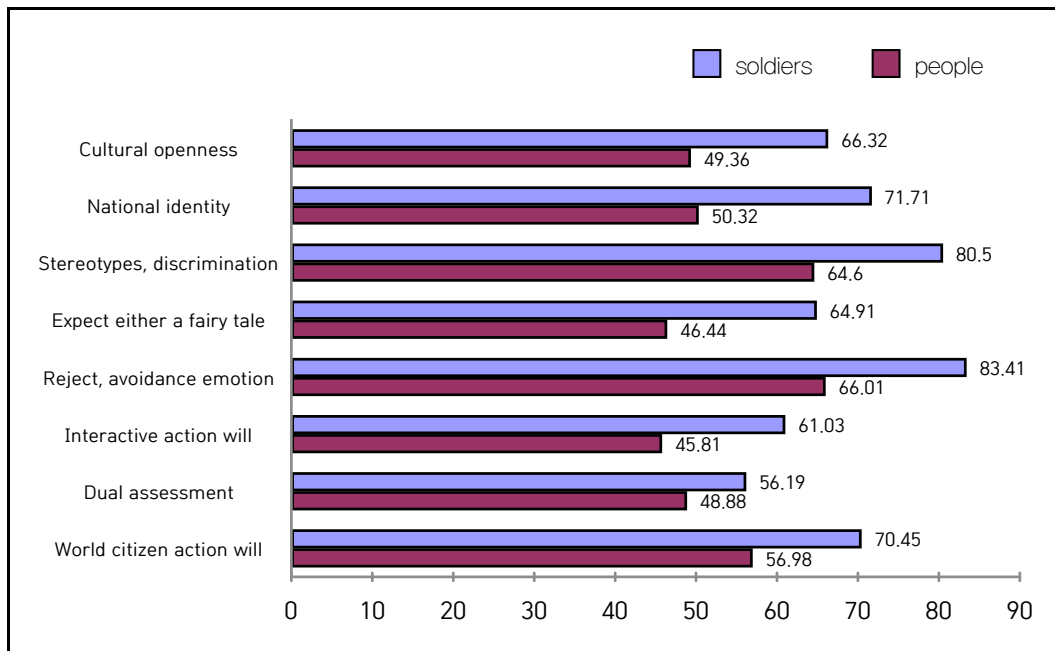


Figure 3.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ldiers and people of multicultural acceptance

피 정서는 한국군 장병이 83.41점, 일반 국민이 66.01점, 상호교류 의지는 한국군 장병이 61.03점, 일반 국민이 45.81점, 이중적 평가는 한국군 장병이 56.19점, 일반 국민이 48.88점, 세계시민 행동 의지는 한국군 장병이 70.45점, 일반 국민이 56.98점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근거하여 KMCI를 활용한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다문화 관련 변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다문화 관련 수용성의 차이를 확인결과는 한국군 장병의 계급, 학력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종교, 입대 전 출신 지역,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층별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일반화되고 정형화된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는 단순목적 빈도, 외국인/이주민의 관계, 다문화 교육 및 관련 활동 참여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반면, 해외여행 및 거주경험과 관련하여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계층별 군 장병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여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 행사나 봉사활동, 외국인/이주민의 동호회활동에 참여한 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평균이 타 변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고 강의식 교육보다는 외국인/이주민과 직접적인 접촉교류나 혹은 체험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를 확인결과 한국군 장병이 일반 국민 보다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및 이주민의 출신 국가나 경제력 수준, 피부색별로 차등을 두는 ‘이중적 평가’ 요소가 일반 국민과 같이 낮은 점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다문화 이해와

인식의 수준 정도를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난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정서’, ‘국민 정체성’,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등의 요소들의 장점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대두된 ‘이중적 평가’, ‘교류 행동 의지’, ‘일방적 동화기대’, ‘문화 개방성’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장병이 병영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인종차별적 문제, 차별행위 금지 및 고충 처리 등 병영 생활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다문화 관련 변인별 차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표집단의 규모가 1개 여단(-) 502명에 불과하고 군 조직 구성원의 특성인 각 군의 병과별, 부대 특성 및 임무 등의 반영이 미흡하여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적인 표본 크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부대 임무의 특성(군별, 병과별, 지역별 등)을 고려한 한국군의 표본 크기의 기준과 도구의 안정화가 마련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장병 다문화 수용성은 선행연구의 탐구와 이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관련 변인을 다문화 접촉 경험, 다문화 관계 유형,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활동 참여 경험으로 제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다양한 변인을 적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군대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로서 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남기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진병규의 2017년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함.

References

- An, Sang Su, *et. al.* 2012. National Multicultural water-soluble research.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 Bennett, M. J. 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pp. 21-71)*. ME: Intercultural Press.
- Berry, J. and R. Kalin. 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An Overview of the 1991 National Surve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7(3): 301-320.
- Berry, J. E. 2002.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25(2): 354.
- Berry, J. W., Y. H. Poortinga, M. H. Segall, and P. R. Dasen.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 Byram, M. and P. Doye. 1999.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Primary School. In: Driscoll, P. and D. Frost (Eds.), *The Teaching of Modern Foreign Languages in the Primary School*. UK: Routledge.
- Chen, G. M. and W. J. Starosta.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eattle, WA.
- Choi, Hyun Duk. 2009.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aju: Dongnek.
- Choi, Sun Ae. 2010. Suggestions to the Civil Society and the Military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 Multicultural Army. *The Korean Social Welfare*. 3(1): 93-113.
- Goo, Jeong Ha, Gue Ju Seol, and Yun Keoung Park. 2010. Understanding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 theory and practice. seoul: Dongmoonsa.
- Hammer, M. R., M. J. Bennett, and R. Wiseman.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 27(4): 421-443.
- Hoopes, D. S. 1979, 1984.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ncepts and the Psychology of Intercultural Experience. In: Pusch, M. D. (Ed.), *Multicultural Education: A Cross-Cultural Training Approach*.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9-39.
- Hwang, Jeong Mee, Sun Hun Kim, and Jin Young Lee. 2007. Diverse multicultural socie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paradigm(I).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s.
- Jung, Min Hwa. 2010. In preparation for the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Army military policy measures. *Military Review*. 53: 412.
- Jung, Sang Jun. 1997. Special Issue : Studies on the Intellectual Currents in the American Society ; Culture : Postmodernism, Pragmatism and Multiculturalism. *American Studies*. 20: 323-342.
- Kaya, Ayhan. 2009. Islam, Migration and Integration.: The Age of Seculariz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elley, C. and J. Meyers. 1995.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s.
- Kelly, C. and J. Meyers. 1995.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 Manual. In: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 New York: McGraw-Hill. 13(2): 357-414.
- Kim, Be Hwan. 1996. The post-modern period of rationality,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Social science*. 35(1): 205-236.
- Kim, Mee Jean.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for Korean Children.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Kim, Yeoung Jun. 2016. According to the Korean army to enlist thei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ducation plan.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1(4): 41-59.
- Kim, Young Ok. 2008. Multicultural society, which corresponded to the direction of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rticle 32 annual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ference.
- Korean social and educational research. 2011. Theory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Paju: Leedam books.
- Lee, Kang Mo. 2015.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in Relation to Multicultural Acceptance: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Lee, Young Sung. 2004. Australian multiculturalism. *East Asian Studies*. 8: 177-205.
- Lynch, E. W. 1992.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altimore, MD, England: Paul H. Brookes.
- Min, Moo Suk. 2010. Korean style multicultural water-soluble diagnostic tools development and research. Korea social integration Counci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12. Research on multicultural youth, water solubl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15. National Multicultural water-soluble surve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05. Defense reform 2020. Seoul: MND.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6. A multicultural educational books for soldiers. Seoul: MND.
- Moon, Kyoung Hee. 2008.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in Australia: Making National Identity, and Racial and Cultural Conflict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8(1): 267-291.
- Noh, Yang Kyu, et. al. 2013. A study on the ROK army in preparation for military service policy. KIDA.
- Noh, Yang Kyu, Na Tae Jong. 2014. A study on the ROK army in preparation for military service policy.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7(4): 55-80.
- The Ministry of Justice. 2017. Annals of statistics, foreign policy, immigration, the year 2016. Seoul: The Ministry of Justice.
- The Ministry of Justice. 2017. Are foreign policy, immigration and statistics-the year 2017. Seoul: The Ministry of Justice.
- Van der Zee, K. I., and J. P. Van Oudenhoven. 2000.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of Multicultural Effectiven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291-309.
- Yang, Kye Min. 2009. The Influence of Korean Ethnic Identity upon the Multicultural Receptiveness of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14-126.
- Yonhap News. 2014 & 2016.

- Yoon, In Jin. 2008.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2): 72-103.
- Yu, Hong Ok, et. al. 2009. Multicultural education for children. Seoul: Yangseowon.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구정화, 설규주, 박운경. 2010.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 국방부. 2005. 국방개혁 2020.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16. 장병 다문화 교육용 교재. 다문화시대 선진강군. 서울: 국방부.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비환. 1996.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사회과학*. 35(1): 205-236.
- 김영옥. 2008. 다문화 사회에 대응한 유아교육의 방향. 제 32회 유아교육학 학술대회.
- 김영준. 2016. 다문화 가정 자녀 입대에 따른 군(軍)내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연구*. 1(4): 41-59.
- 노양규 외. 2013. 다문화 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 연구. 한국국방발전연구원.
- 노양규, 나태중. 2014. 다문화 군대에 대비한 한국군의 병영정책 발전방안. *다문화교육연구*. 7(4): 55-80.
- 문경희. 2008.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국제정치논집*. 48(1): 267-291.
- 민무숙 외. 2010.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 개발연구. 한국사회통합위원회.
- 법무부. 2017.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발간.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17.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11월호. 서울: 법무부.
- 병무청. 2009. 제284회 정기(임시)국회 업무현황보고.
- 병무청. 2016. 병역자원현황(1996~2015). 병무통계연보. e-나라지표.
- 병무청. 2017. 2016 병무청 통계연보.
- 안상수 외. 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계민. 2009. 한민족 정체성과 자민족 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114-126.
- 여성가족부. 2015.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 연합뉴스. 2016. <국군, 2025년부터 '다문화 군대'로 변한다>, 6월 20일.
- 연합신문. 2014. <국방 다문화 시대> 다문화 장병 1천명 시대(상), 11월 24일.
- 유홍옥 외. 2009.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 서울: 양서원.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강모. 2015. 다문화 수용성의 결정요인 연구: 다문화 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승. 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177-205.
- 정민화. 2010. 다문화 군대 전환에 대비한 군 정책방안. *군사평론*. 53: 412.
- 정상준. 1997. 특집: 미국사회의 지적 흐름; 미국 문화의 단일성과 다양성: 포스트모더니즘, 실용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미국학*. 20: 323-342.
- 최선애. 2010. 다문화 군대를 대비한 민과 군의 준비방향에 관한 제언. *한국군사회복지학*. 3(1): 93-113.
- 최현덕 외. 2009.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 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파주: 동녘.
- 통계청. 2015. 2015년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통계청. 2017. 병무통계(URL: <http://kosis.kr/wnsearch>): 병역준비역 등 자원현황.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11.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파주: 이담books.
- 황정미, 김이선,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Received: Mar. 16, 2017 / Revised: Apr. 5, 2018 / Accepted: Apr. 24, 2018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살펴보고,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을 통해 다문화 병영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를 통해 개발된 KMCI 진단도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 장병 전체의 다문화 수용성지수가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계급과 학력에서 일반 국민과 한국군 장병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다문화와 관련된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에서 하위 영역별로 모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국군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역별 장점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교육대상을 계층별로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마련하며, 다문화 교육기회 확대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 다문화 군대,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교육,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

-
- Profiles** **Byung Kyu Jin** : He obtained a doctorate in military science from the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at Daejeon University as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in Korean soldiers”.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defense policy / strategy, multicultural barrack policy, and social welfare. The main research papers are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Korean Military Multicultural Barracks.”, “A Study on the Korean Military Multicultural Barracks Policy”(jbk0622@hanmail.net).
- Hyo Sun Park** : Chung-Ang University received Ph. D. from HRD policy and Currently a Professor of military study in Cheongju University. Major writings and papers include “The army Life-long education”, “Arm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 study on the military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cision-making process”, “Review of the experience of military service recognized measures for them”, “Strengthening the military and related school security education” etc. Interests include milita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lifelong learning,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crisis management, is an ex-support education(phs6166@cju.ac.kr).